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이름		학번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연락처		E-MAIL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일본	파견 학교	시즈오카대학	
	파견 시기	25.09~ 26.02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i>日本語 4A-F</i>	<i>일본어 독해, 문법 수업</i>		
		<i>日本語 4B-F</i>	<i>일본어 회화, 리딩 수업</i>		
		<i>日本語 4C-F</i>	<i>일본어 회화, 그룹 토론 수업</i>		
		<i>日本語 5B-F</i>	<i>일본어 논문 작성 수업</i>		
<i>文化人類学概論</i>		<i>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론 수업</i>			
<i>自己と関係の社会学</i>	<i>자기 성찰, 자아 관계 수업</i>				
체험수기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 25년도 2월에 시즈오카 교환학생 공고를 보고 절차에 따라 신청함. - 합격 공지를 받고, 수학계획서, 교수추천서, 건강검진표, 여권 사진, JLPT N1, N2 자격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마무리 함. - 개인적으로 기숙사 생활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따로 집을 계약해서 거주하는 형태로 결정함. (집 계약은 6~9월에 걸쳐서 마무리 함.) - CoE 발급과 입학허가서를 추후에 파견교로부터 받게 되는데, 다소 느려서 8월 말쯤 나왔던 것으로 기억함. (종합적인 기간 고려 필요함.)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1) 일본의 수업 방식과 이수한 과목 및 내용 소개				
	- 수업 방식과 평가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일본에서는 수업 시작 전 혹은 끝날 때 ‘코멘트페이퍼(CP)’ 라는 것을 배부하여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함. (코멘트페이퍼란, 수업 감상문, 질문 사항을 기록하는 용지임.)				
	- 시험의 경우, 중간고사를 응시하는 과목이 전기(前期)와 다르게 내가 파견된 후기(後期)에는 거의 없었음.				
	- 대부분 기말고사만 진행되거나, 레포트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수업이 많았음.				
	(2) 일본어 과목 소개				
	1. 일본어 4A				
	-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문화, 사회 구조, 편견 등에 대해서 지문을 읽고 서로 토론하여 자신의 의견을 일본어로 말하는 수업이었음. - 개인적으로 시험보다,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직접 발표하는 활동이 많은 공부가 되었음.				
	2. 일본어 4B				
- 이 수업은 서로 팀을 이루어서 회화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음. -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서로 팀을 이루어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상 회화문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이었음.

3. 일본어 4C

- 이 수업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관련 지문을 그룹(3~4명)을 지어 서로 읽어보고, 주제와 관련한 질문들에 일본어로 답변해보는 시간이 주를 이루었음.
- 일본어 실력이 서로 제각각이었지만, 서로 협력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여 서로를 알아가며 발표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수업이었음.

4. 일본어 5B

- 일본어 수업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업으로, 일본 대학교에서 작성하는 논문을 자신이 직접 관심있는 테마를 선택하여,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보는 수업이었음.
- 매 회차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논문 내용을 작성하며,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과도 주제를 공유하여 일본어 능력과 어휘력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었음.
-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여, 완성된 자신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 수업 역시 매우 뜻깊은 수업이었음.

5. 자기관계사회학

- 이 수업의 경우, 특히 자기성찰, 자아,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룸.
- 평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의 자아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인간학, 사회학 내용을 다룬 수업으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가 많았기에,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업이었음.

6. 문화인류학개론

- 인간과 다양한 문화를 결합하여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는 수업이었음.
- 수업 진행 방식이 좋았음. 특히, 3회차로 내용을 각각 나누어 다양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그룹 토론 활동으로 15분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많이 생각났던 활동.
- 외국인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성한 코멘트페이퍼 질문을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직접 응답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음.

(3) 그 외 활동

1. 오지로 녹차 만들기 체험

- 파견교의 농학부 학생들과 교환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녹차 만들기 체험을 했던 활동.
- 시즈오카는 와사비, 오뎅 이외에 녹차로도 유명한 지역이라서 이 녹차를 직접 만들어 음미해보고 녹차의 역사를 알아보았던 활동이었음.
- 녹차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녹차 이론과, 녹차 만드는 방법, 마시는 방법 등도 함께 배워 일본 녹차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2. 시즈오카대학 문화제

- 11월에 열린 시즈오카대학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동아리와, 시즈오카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지학동아리의 천체관측 활동과, 밴드부의 락 공연이 인상 깊었음.
-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직접 준비한 결과물과 성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음.

3. 시즈오카 중학교 참관 수업

- 시즈오카 도내에 있는 중학교에 방문하여 중학생들과 일본어, 영어를 사용하여 서로

- 반면, 기숙사의 생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 하지만, 공동생활이기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적어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때문에,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임.

***9~12월 주거 비용 (단위: yen)**

39,220 x 3 = 117,660 (12월 환율 기준, 약 110~113만원)

(3) 식비

1) 9~12월 자취 장보기 비용 및 외식 비용

구분	자취 장보기 비용	외식 비용	합계
9월	20,420엔 (약 20만원)	22,049엔 (약 22만원)	42,469엔 (약 42만원)
10월	21,092엔 (약 21만원)	20,498엔 (약 20만원)	41,590엔 (약 41만원)
11월	18,992엔 (약 19만원)	25,980엔 (약 26만원)	44,972엔 (약 45만원)
12월	15,429엔 (약 15만원)	19,235엔 (약 19만원)	34,664엔 (약 34만원)

2) 정리

구분	각 비용	기타
자취 장보기 비용	75,933엔 (약 76만원)	주 2~3회 정도 장보기 비용 지출
외식 비용	87,762엔 (약 87만원)	주 3회 정도 외식 비용 지출 타 지역 (도쿄 등) 여행 외식 지출 공휴일 및 기념일 외식 지출

(3) 개인 경비 (통신비, 교통비, 여행비용)

1) 통신비

- 통신비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를 이용하여, 약 39000원 정도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함.
-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기가 수가 정해져 있는 다른 요금제보다 가성비가 좋아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였기에 만족하였음.
- 데이터 기가수가 정해져 있는 요금제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기에, 매우 추천함.

2) 교통비

*교통비 계산

(1) 시즈오카 역으로 이동할 때

집 근처 버스 정류장 (堀ノ内) → 静岡駅・新静岡駅 (310엔, 약 3000원)

(2) 타 지역으로 여행 갈 때 (도쿄)

堀ノ内 → 静岡駅・新静岡駅 (310엔, 약 3000원)

→ +버스 이용 시, 왕복 6600엔 지출. (약 6만원)

→ +신칸센 이용 시, 왕복 11800엔 지출 (약 11만원)

***한 달 평균 약 3~5만원 정도의 교통비 지출. (여행을 가지 않은 경우)**

***여행한 달의 경우, 3~5만원 교통비 + 6만원 or 11만원 = 약 11~18만원 사이 지출.**

3) 공과금

*공과금 계산

(1) 수도세 (2달에 한 번 지불) (9~12월 약 4만원 지불)

- 약 4000엔 (약 4만원)

(2) 전기세 (9~12월 약 12만원 지불)

- 약 2500엔~4000엔 (약 2만 5천원 ~ 4만원)

(3) 가스비 (9~12월 약 10만원 지불)

- 약 1500엔~3000엔 (약 1만 5천원 ~ 3만원)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외에서 수업을 듣는 경험을 넘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일본에서의 생활은 언어와 문화, 생활 방식 전반에서 익숙하지 않은 요소로 가득했으나 그 낯섶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느낌.
-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언어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함.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현지에서는 '전달하려는 태도'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일본어'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였음.
- 완벽하지 않더라도 먼저 말하고, 틀리면 고쳐 나가는 과정속에서 언어가 지식이 아닌 소통의 도구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음.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 3학년 1학기는 조선대에서 수업을 이수할 예정.
- 3학년 2학기에는 교환학생에 이어 국비유학에 도전할 계획.

2) 진로계획

- 졸업 후에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계획.
- 워킹홀리데이가 끝날 무렵 취업비자를 취득할 예정.
- 진로의 경우, 방송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음. (방송코디네이터, 방송인 등)
- 현재도 다양한 일본 방송 및 연예계 회사의 공고를 보며 면접을 응시해보고 있음.
이 경험을 향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조언은 교환학생 생활을 단순히 유학경험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 파견 할 국가의 생활 전체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 수업, 문화체험, 일상생활은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경험이 교환학생 생활의 의미를 형성한다.
- 수업과 학업 측면에서는, 완벽한 언어 실력을 갖춘 뒤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 놓기를 권하고 싶다.
- 실제 수업에서는 정확성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 이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려는 자세가 현지 교수 및 학생들과의 소통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문화체험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차이에 주목해 보기를 추천한다.
- 수업 방식, 일본인들과의 거리감, 생활 속 배려의 방식 등 평범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 오히려 해당 사회의 문화적 요소와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기타사항

- 파견 될 국가와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교통편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는 것을 적극 권장.
- 기숙사나 자신의 거처 주변의 지리적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면 생활의 질이 높아짐.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1) 유학생 환영 파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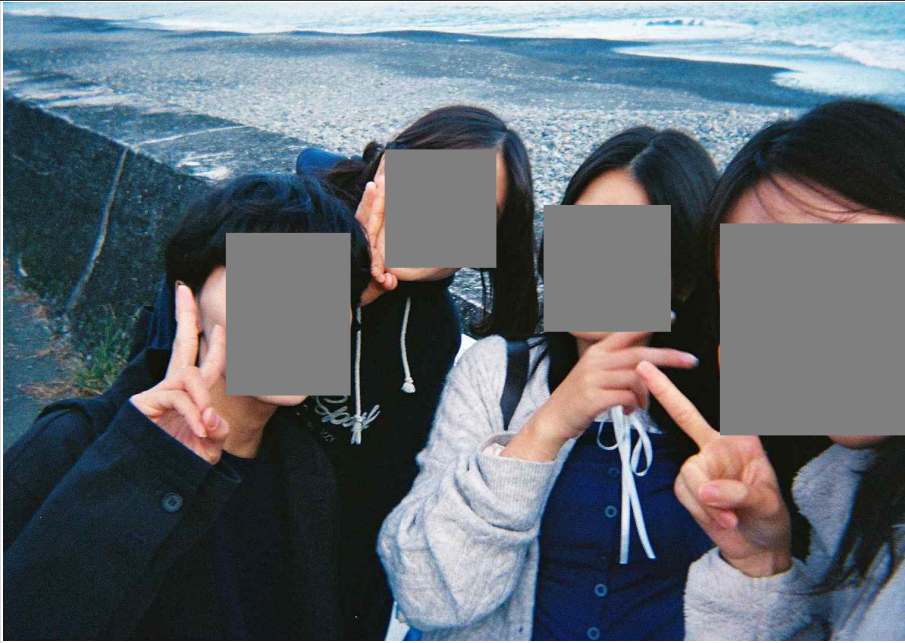
- 처음 10월 파견 당시, 유학생 파티 때 유학생 전원이 모여 찍은 사진이다.



2) 유학생 친구들과 행사 때 함께 찍은 사진



- 같은 한국 국적인 유학생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



- 모치무네 바다 관광지 탐방 때 찍은 사진

3) 일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 환영 파티 겸 밥 약속이 있던 날 찍은 사진